

이집트 현대사의 明暗 우화적 표현

노벨문학상 받은 아랍 현대문학의 기수 마흐프즈

금년도 노벨문학상은 피라미드와 스팅크스, 나일강의 나라 이집트의 원로작가 나집 마흐프즈(76)에게 돌아갔다. 그동안 스웨덴 한림원은 제3세계 작가들로부터 역대 수상자들이 지나치게 서구에 편중돼 있다는 항의를 들어왔는데, 이번 아랍어권 작가에 대한 최초의 수상은 그런 점에서 일단 신선감을 자아내고 있다. 한림원은 마흐프즈의 작품이 “한편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현실주의적이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모호성이 있는 등 뒤앙스가 아주 풍부하다”면서, 그의 작품은 단순히 아랍어 문화권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 아랍문학의 대명사

아랍문학하면 누구나 일차적으로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일 것이다. 「千一夜話」라고도 불리는 이 설화집은 18세기 초엽 프랑스로 번역되면서 서구의 현대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랍은 이처럼 위대한 서사문학의 전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세계문학의 뒷전을 맴돌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때 아랍문학을 다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작가가 바로 나집 마흐프즈이다. 즉 「아라비안 나이트」가 고전 아랍문학의 대명사라면 현대 아랍문학의 대명사로 통용되는 작가가 바로 이집트의 나집 마흐프즈인 것이다.

그는 1911년 카이로의 중류가정에서 태어나 현 카이로대학의 전신인 킹푸아드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원고료를 벌기 위해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39년 첫 단편집인 「정신나간 속삭임」을 출간한 이래 지금까지 10여권의 단편집과 30여권에 달하는 장장편 및 여러편의 희곡과 시나리오를 발표해왔다.

그의 작품세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 첫째 부류에 속하는 작품은 그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내놓은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로서, 30년대 아랍세계에서의 전통과 새로운 불결과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는 「운명의 회룡」에서 전통을 상징하는 왕이 새로운 사조를 내세우는 사람에게 할 수 없이 왕위를 양위하는 것을 그려냈으며, 「라도피스」 「테베의 싸움」 「헤리오폴리스」 등의 낭만적 역사물을 통해 당시 정치



사회상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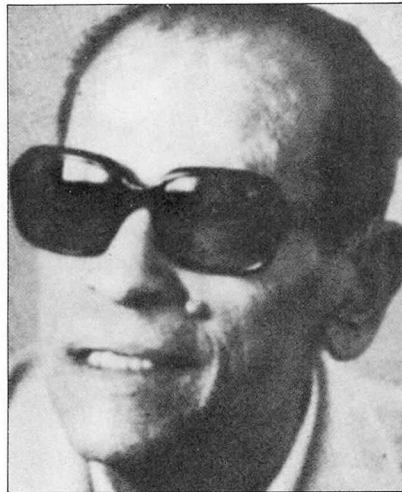
그러나 45년 「새로운 카이로」를 발표하면서 그는 사실주의적 사회소설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이 부류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3부작 「바이나 카스라인」 「카스르 시크」 「수카리아」는 일차세계대전 때부터 이차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한 가족의 三代에 걸친 생활상을 다룬 대하소설로, 서구의 지배를 반대하는 아랍 민족정신이 관류하고 있다. 특히 카이로시에 대한 그의 탁월한 묘사는 파리를 그린 에밀 졸라나 런던을 그린 찰스 디킨스에 필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52년 나세르가 일으킨 혁명에 충격을 받은 그는 한때 절필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59년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는 작품세계에 큰 변화를 보인다. 즉 소외된 빈곤계층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던 수법에서 탈피하여 형이상학적인 알레고리 쪽으로 나아갔다. 이 시기에 대해 비평가들은 ‘보편적 인간’을 위해 ‘사회적 인간’을 버렸다고 표현했으며,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우리동네 아이들」을 비롯, 「도적과 개들」 「메추라기와 가을」 등을 대표작으로 꼽고 있다.

지난 86년 志學社에서 ‘오늘의 세계문학’ 총서의 하나로 출간한 「도적과 개들」(송경숙 옮김)은 바로 이 세번째 부류에 속하는 작품으로서, 표제작 외에 「신다섯 개의 거울」이란 작품을 같이 실고 있다.

현대인의 위기의식과 소외감 드러내

「도적과 개들」의 주인공 사이드 마흐란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저지른 최초의 도둑질이 인연이 되어 환경의 영향으로 도둑질



금년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나집 마흐프즈.

을 주업으로 삼게 된 인물이다. 소설의 서두는 사이드가 4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감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가 감혀 있는 동안 일리쉬라는 인물과 원래 사이드의 처였던 나바위야는 서로 음모를 꾸며 사이드가 모은 재물을 가로채고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이드는 외부의 모든 적대 세력을 ‘개’라는 동물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일리쉬와 나바위야가 단세포적인 배반자라면,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는 라우프는 보다 복합적인 성격의 배반자이다. 맨 처음 사이드의 도둑질을 옹호하고 정당화시킨 자도 그였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부추긴 자도 그였으나, 결국 그 자신은 변화하는 사회와 기회주의적으로 야합해버린다.

이처럼 주위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한 사이드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딸 ‘사나’이다. 그러나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사나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만다. 결국 사이드는 신에게 귀의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현자 셰이크의 권고를 뿌리치고 복수를 감행하지만 엉뚱한 사람만 살해하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그는 공동묘지에서 경찰의 총탄세례를 받고 비참하게 죽어간다.

이 소설은 이처럼 당시의 부패한 사회구조와 타락이 한 선량한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간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사이드라는 개인의 위기의식·고독·고뇌·절망·소외 등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본질적이고도 보편적인 문제에 다다를 수 있도록 했다. 기법면에 있어서도 배경·인물·사건의 전개를 상세히 설명해나가는 보고서 형식

에서 탈피하여 꿈과 현실, 강박관념 등을 뒤섞음으로써 주인공 심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함께 수록된 「신다섯개의 거울」은 71년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는 잡지에 두세편씩 연재됐다가 72년 단행본으로 발간된 작품으로, 1919년 反英 혁명시기로부터 시작하여 1967년 6월전쟁의 패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금세기 전반의 이집트의 사회상을 신다섯 사람의 스케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색적인 유니버스형식의 장편소설이다.

수상작의 중복출판·과다경쟁 말아야

金容善교수(외대 아랍어과)는 마흐프즈의 작품의 주제는 “무지로부터의 진보, 암흑으로부터의 탈출, 사회부조리로부터의 해방”이라면서 이번 노벨상수상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후예들에 대한 세계문단의 인정이라고 말했다.

출판관계자들은 이제 우리 출판문화도 상당히 성숙한 만큼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노벨문학상 수상작의 중복출판·출속계작을 올해부터는 지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 지난 몇년간 이른바 ‘노벨상 붐’이 급격히 시들어가고 있다는 객관적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중요한 작가, 뛰어난 작품을 폭넓게 소개해온 지학사의 ‘오늘의 세계문학’은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86년 5월 「神의 화살」(아체베, 권명식 옮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권을 낸 이 날권 형식의 세계문학전집은 마흐프즈를 포함, 우리로서는 생소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구권 작가들의 작품을 과감히 소개, 국내 독자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이 목록에 속해 있는 작가들의 상당수가 해마다 노벨문학상 최종후보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어서 앞으로도 노벨문학상에 관한 이 총서가 황금어장(?) 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학사는 11월초 아돌프 뫼스크의 「빛과 열쇠」, 밀란 쿤데라의 「농담」, 조이스 캐롤 오츠의 「나와 더불어 그대와 함께」를 내는 등, 국내에 미소개된 세계 정상급 작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펴낼 계획으로 있다.

—남진우 기자